

21世紀를 바라보는 林政발전 심포지움 개최

山林廳은 지난 10月 18日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임업연구원 주최로 學界, 林業人, 篤林家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林政發展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의 討論者別 發表要旨을 소개한다. - 편집자

《基調發表》

21世紀를 향한 林政發展 基本方向

趙 在 明 / 林業研究院長

多様な變化가 豫想되는 21世紀에 對處하기 爲해서는, 林業經營 近代化를 爲한 林業基盤造成, 健全한 生態系의 維持를 통한 資源增大, 安定的 供給 및 山主·消費者의 權益을 爲한 流通構造改善, 國有林經營의 合理化, 山林管理를 爲한 山村振興, 國民要請에 副應할 수 있는 公益機能確保 等の 諸般政策으로의 方向轉換이 時急하다.

○ 이러한 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山林法 改正, 山林法行政機構의 改編, 林業研究의 活性化等の 改善案이 山林에 對한 國民의 多様な 要請을 積極的으로 受容하는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하는 바, 山林法은 保全林地의 他用途轉換時 山林毀損許可의 省略 等 專用節次를 簡素化시킴으로서 對國民便宜를 提供하며, 林野投機抑制 및 林地

利用의 效率性 提高를 爲한 改正等이 要請되고 있다.

○ 山林行政은 國有林行政과 民有林行政을 區分 調整하며 經濟政策과 公益 政策을 強化하기 爲한 機構改編은 勿論, 一線國有林 行政機構를 現在의 營林署·管理所·出張所의 3段階에서 地方營林局·營林署의 2段階로 整備·強化하는 것도 要求된다.

○ 또한 研究의 境遇에도 政策開發, 公益機能提高 및 農山村 短期所得增大, 尖端科學·基礎科學의 研究을 強化시켜야 하며, 尖端·基礎科學分野는 國家研究機關이, 地域·應用研究를 地方研究機關이 分擔하도록 하는 體制改編도 重要한 바, 이를 爲한 研究基盤造成도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討論者發表》

山林資源造成的 效率의 推進方向

任 慶 彬 / 圓光大教授

山地資源化 10個年 計劃期間中 天然林은 年平均 4.6萬ha가 人工林으로 轉換될 豫

定이고, 1997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34年間은 每年 3.2ha가, 2030년부터 2080년에 이르는 約 50年間은 年平均 1萬ha가 人工林으로 轉換시킬 計劃인데, 天然林은 그동안 發揮한 水資源 機能 風致效果·土砂 流出防止, 野生動物保護等에 對한 公益的效果가 매우 컸다고 생각되므로 天然林保護·育成에도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今後 價值觀의 變化가 豫想되므로 山岳林을 갖는 우리는 天然林率을 50% 以內의 水準으로 維持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 山林所有規模의 零細性은 合理的 林業經營에 莫大한 隘路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協業化經營을 통해 所有의 零細性을 克服하여야 하는 바, 地方과 地域의 因子를 크게 考慮하여 保續收穫이 可能하다고 判斷되는 20~30ha 規模의 協業地域을 積極育成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地域의 末端 經營單位가 保續生産 體制로 들어가 林業先進國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所望이나, 이를 爲하여는 各道·營林署마다 保續生産을 遂行하고 있는 經營

單位의 山林計劃案과 그 實行內容을 專門家들과 市民들에게 發表하여 合議를 얻기 爲한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林業經營을 林業大團地, 林業經營團地로 하여 遂行하는 것은 좋으나, 林業은 水理와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事業이므로 水系別, 支流系別로 地域的 林業經營의 保續性이 保障되도록 經營單位를 擴大하는 政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 山林投資에 對한 낮은 收益性, 山村人口의 過少化로 因한 勞動力不足 等 큰 難關에 부딪치고 있는게 林業經營의 現實이다. 따라서 이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造林地 整理, 下刈作業, 除伐, 天然林保育, 林道施設 等 自費負擔이 20.40%에 이르고 있는 現實을 直視해서 自費負擔率을 果敢하게 낮추어야 한다. 또한 政府는 山林이 發揮하는 公益的機能을 勘案할 때 國立公園, 道立公園 等 自然公園의 實體는 山林인 同時에 生態系維持를 爲해서도 生物學的調節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考慮하여 自然公園局을 山林廳 內局으로 두는 것이 必要하다.

산지의 多目的利用 開發方向

尹 汝 昌 / 서울대 助教授

○ 現在의 山地利用은 關聯部處間의 서로 相衝·重復되는 複雜한 法制度 및 行政慣行等으로 因하여 部處間의 協議·調整을 통한 效率的인 利用體系가 期待되기 어려운 實定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山地라는 空間을 利用하는 데 있어서는 空間을 構成하고 있는 地理的·生態的 條件뿐만 아니라 山地의 利用으로 부터 期待될 수 있는

各種 財貨 및 用役은 勿論 市場을 通하지 않는 公共財에 對한 利用 不能性 및 長期的인 需要를 同時에 考慮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體系的이고도 合理的인 利用政策을 確立해야 한다.

○ 山林廳과 建設部等 山地利用에 關聯된 部處가 協議하여 山地利用區分을 單一化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要請되며, 主產物

中心의 모자이크式 多目的 山林利用을 計劃的으로 推進하는 것이 要求된다.

○ 山地利用計劃의 體系的인 樹立과 山林資源의 綜合的인 管理를 爲한 行政體系의 一元化가 必要하며, 特히 國立公園이나 休養林의 造成管理는 山林行政을 擔當하는 部處가 一括하여 取扱하는 것이 資源의 效率的 管理라는 側面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 山林은 環境財를 中心으로 한 公共財를 供給하고 있기 때문에 山主들에게 公共財 部分에 對한 價値報償을 해주기 爲해서는 새로운 制度的裝置가 要請되는 바, 上水道稅의 一部分을 上流地域의 水源涵養林造成에 使用하는 것과 같이 收益者 負擔原則의 制度的 確立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지난 10. 18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정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民有林經營實態와 今後發展方案

呂 榮 東 / 동해필프理事

○ 經濟林造成에 主力해야할 現時點에서 綠化時期에 適用되었던 營林計劃 經營地의 造林費 豫置強要와 山林經營에 符合하지않는 造林樹種의 植栽強要 等 規制爲主의 山林法規를 改正하여 助長爲主의 山林政策으

로 轉換 해야 할 必要性이 크게 擡頭 되었다. 이에 對한 方案으로서 山林經營에 自律化가 可能한 個人이나 業體는 資格을 賦與하여 自率的으로 責任을 지고 經營할 수 있도록 保障해 주는 山林法의 改正이 要求

된다.

○農山村의 勞動力은 줄고 山에서의 重 勞動을 忌避함으로서 相對的으로 勞賃은 上昇하고 山林經營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內材는 輸入材에 對하여 競爭力이 떨어지게 되므로서 山林經營이 크게 萎縮되었다. 따라서 國有林內에 示範林 經營團地를 造成하여 民有林 經營에

模範이 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經營技術의 開發과 普及이 活性化 될 수 있다.

또한 山林經營의 活性化를 圖護하기 위하여는 山林經營을 委託받아 實施할 수 있도록 山林組合의 機能을 擴大하거나 아니면 이를 擔當할 수 있는 團體나 會社 設立을 勸獎한다.

山林의 公益的機能維持 增進方案

韓 相 燮 / 江原大教授

○各種 山林의 公益的 機能을 積極的으로 確保하기 爲한 對策 樹立이 必要한 바, 每年 8千ha씩 減少하고 있는 山林面積 가운데 그 大部分은 都市 近郊林이라는 事實을 勘案할 때, 年 8千ha씩 山林面積이 減少하고 있는데 緣地率 30%로서 市民 1人當 20m²의 都市公園은 確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樹齡이 增加하고 蓄積이 增加하면 環境保全, 水源涵養, 生物保護, 大氣淨化等 모든 公益機能이 增加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山林蓄積을 增加시키고 國內材 供給을 最小限의 線으로 凍結시키기 爲한 山林廳의 中短期 政策은 바람직한 判斷이라고 評

價할 수 있다.

○21世紀에 가서 山林은 環境保存이나 環境汚染에 對한 淨化機能이 더욱 커질 展望이다. 아울러 山林生態系保存은 더욱 強調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木材生産을 爲主로 한 針葉樹 一邊途의 造林은 改善되어야 할 課題이다.

○山林은 人間에게 많은 公益機能의 惠澤을 주고 있는 바, 休養林, 山林浴場 等 休養施設을 積極 擴大하는 政策이 必要로 된다. 特히 都市民의 食水를 供給하는 水源林이나 公害防止機能을 갖는 山林에 對해서 水源稅를 거두어 山主에게 報償해 주어야 한다.

育林用語

力枝 : 한 나무의 가지중 유난히 굵은 가지가 있다.

育林上 가지치기를 할때는 이 力枝까지를 잘라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